

‘믿음’을 방문판매하는 선교사들

해외불교칼럼

최근 아시아 각국은 ‘다국적집단지침’들의 선교공세로 큰 곤욕을 치른다. 그들은 주로 분쟁후유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너희 빈곤시대는 우리 전성시대요, 너희 눈물바다는 우리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특히 일부 선교사들은 출신지 본국의 선량한 교우들로부터 선교지원 후원금을 쏙쏙히 걷어내는 명분과 도구로도 사용한다. 가상이든 실제든 선교 체험기나 영상물 등이 착한 본국교우들의 감동(感涙)을 자아낼수록 후원재정은 더욱 알차고 뱅뱅회전한다. 게다가 ‘국제선교’라든 패셔블하게 들린다. 외국에 나가고픈 꿈도 채워지고 답답한 현실도 도피할 수 있다. 또 외국어 구사능력과 교양도 제법 갖춘 자아낼수록 후원재정은 더욱 알차고 뱅뱅회전한다. 게다가 ‘국제선교’라든 패셔블하게 들린다. 외국에 나가고픈 꿈도 채워지고 답답한 현실도 도피할 수 있다. 또 외국어 구사능력과 교양도 제법 갖춘 자아낼수록 후원재정은 더욱 알차고 뱅뱅회전한다.

사실 그들은 이처럼 순진한 아마추어다. 따라서 프로들이 던진 그럴싸한 미끼에 걸려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은총과 신분상승의 기회를 거머쥔 양 붕 뜨게 마련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영혼은 압류되고 사고(思考)도 프로들이 대행을 한다. 이내 그들은 두뇌세척을 마치고 새로 입력된 작업프로그램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즉, 자신의 상황판단과 분별기능이 황폐화되어 간다. 요즘 캄보디아 등 전통적 힌두교, 불교와 이슬람 지역 동남아시아에선 다국적 선교꾼만이 한창이다. 그들은 영치와 체면을 모른다. 또 기본법절도 배려도 알 바 없다. 언제 어디서나 그저 불속 ‘믿음’을 들이밀어 애꿎은 이들을 소스라치게 한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방문선교사를 내쫓는



서구에서도 지나친 선교행위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국내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회 투표소'.

되지않아 인터넷에 떠돈다. 다음은 ‘문을 두드리는 자는 누구인가(Who's that knocking on the door?)’라는 글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독교 백인가정출신으로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인도에서 수개월 탐미카 스님이 각종 선교사들의 폐해를 호소하는 불자들을 위해 쓴 글이다. 이집 지지를 떠돌며 에타게 문을 두드리는 가여운 중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섯 달 쯤 누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선교사들이 서있었다. 남을 개종시키려고 친한 척 거짓미소를 짓는 그들을 보자마자 나는 금세 알아차렸다. 그런 이들이 우리 대문을 두드린 게 그 달만도 세 번째였다. 이전 꽤 짜증이 났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인사하자 나도 똑같이 했다. 그들은 즉시 작업을 걸

어왔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좀 들긴 했죠. 하지만 저는 불자라서 더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으레 그렇듯 내 생각을 아예 무시하고 자신

들의 믿음에 대해 졸졸 늘어났다. 내가 말했다. “제 생각에 님들은 예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에 그들은 깜짝 놀랐다. “왜 자격이 없어요?” “님은 믿음이 없으시거든요.” 그들이 대꾸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바위처럼 강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안 그런 걸요? 그럼 바이블을 펼쳐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나는 그들이 그걸 뒤적이는 사이에 열린 집안에 다녀왔다. 그들은 그 구절을 큰소리로 읽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주: 우리말 개역개정 마가복음).” 그들이 다 읽자 내가 말했다. “그 구절에 보면 예수

는 참된 믿음을 지닌다면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곤 나는 뒷에 쥐고 있던 라켓(농악제조직체의 상호)의 병을 앞으로 꺼내들며 말했다. “이건 독극물이거든요. 이걸로 님들이 지닌 믿음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때부터 님들이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건 죄다 공이들께요.” 그들의 마구 일그러진 낯을 여러분도 보셨어야 하는 건데! 내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믿음이 강하지 못하셔요?” 머뭇대던 그들이 말했다. “저, 바이블엔 ‘신을 시험해선 아니 되느니라’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시험하려는 건 신이 아니라 님들이요. 님들은 늘 예수께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죠? 자, 바로 지금이 완벽한 기회군요. 안 그래요?” 그들이 우물렀다. “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교회 목사님과 의논해보고 다시 방문을 드려요.” “네, 아무 때나.” 물론 그 사람들은 다신 안 왔죠. 끝으로 여러분께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우선 바이블에서 이 구절을 한 장 복사하세요. 그리고 라켓 농악도 한 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문 앞에 와서 집적뎠 때마다 이 시험을 해보세요. 아니면 대체 형 디젤엔진인 풀랑가를 준비해서도 괜찮을 거예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곤 나는 뒷에 쥐고 있던 라켓(농악제조직체의 상호)의 병을 앞으로 꺼내들며 말했다. “이건 독극물이거든요. 이걸로 님들이 지닌 믿음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때부터 님들이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건 죄다 공이들께요.” 그들의 마구 일그러진 낯을 여러분도 보셨어야 하는 건데! 내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믿음이 강하지 못하셔요?” 머뭇대던 그들이 말했다. “저, 바이블엔 ‘신을 시험해선 아니 되느니라’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시험하려는 건 신이 아니라 님들이요. 님들은 늘 예수께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죠? 자, 바로 지금이 완벽한 기회군요. 안 그래요?” 그들이 우물렀다. “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교회 목사님과 의논해보고 다시 방문을 드려요.” “네, 아무 때나.” 물론 그 사람들은 다신 안 왔죠. 끝으로 여러분께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우선 바이블에서 이 구절을 한 장 복사하세요. 그리고 라켓 농악도 한 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문 앞에 와서 집적뎠 때마다 이 시험을 해보세요. 아니면 대체 형 디젤엔진인 풀랑가를 준비해서도 괜찮을 거예요.

‘믿음’이란 아름답거나 소위 ‘믿는 이’들의 행태가 오죽하면 이런 글이 온 세상을 다 떠돌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믿음을 떠돌이 방문판매하고 기본수당이라도 타야할 만치 삶이 어려운 건지? 밀가루, 현혹까지 등을 타려고 억지 ‘믿음’을 꾸며야 했던 우리네 옛 모습이 어른간다. 그렇게 바랜 그 흑백사진들을 뒤적여듯 마음이 시리다.

참조: Who's that knocking on the door? A Buddhist's Guide to Evangelical Christianity, FOCUS, EAS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②

“기독교는 흑인 노예화 무기”

앨리스 워커가 대학을 다닐 즈음인 1960년대 중반 들어 고조된 흑인민권운동의 시발점은 자아정체성의 회복이다. 흑인들은 선조들이 백인들의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끌려올 때 송두리째 뺏혀버린 영혼의 뿌리 찾기에 나선다. 그들은 자아정체성을 종교적 바탕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은 백인주인들이 노예들에게 제멋대로 붙인 이름,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식 세례명부터 내던진다. 자신들의 영혼을 압류하고 노예로 부려온 저주의 상징으로 여긴 것이다. 일제하창씨개명이 한국인의 기백과 뿌리를 말살시키는 계책이었음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이다.

이윽고 그들은 조상들이 본디 지녔던 아프리카 토속명칭이나 이슬람식 이름으로 바꾼

그의 부친은 극렬한 백인우월폭력조직인 KKK에 끌려가 기차 철로 위에 놓여져 두 동강이 난 시체로 바뀐다. 그리고 그 극악한 살인에 충격을 받은 모친은 정신이상자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백인 기독교도의 만행은 그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당대 흑인들에게 거의 일상사였다. 다만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철저히 기독교적 악령에 길들여져 왔을 뿐이다. 맬컴 엑스는 이를 개탄하며 이른바 ‘기독교 교조 기적’에 대해 말한다.

“기독교가 미국에서 이룩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백인 기독교도의 악랄한 손아귀에 잡혀든 2200만 흑인들이 항상 비폭력적이었던 사실이다. 백인들의 야만적 잔혹행위와 착취에 맞서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기적이다!”

그는 늘 직설적이며 논거를 대면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슬람 이름으로 바꾼다. ‘맬컴 리틀’이란 미국 이슬람 흑인민권운동가 역시 하지 말라 엘 사바트라는 이슬람식 개명을 한다. 맬컴 엑스(Malcolm X)로 더 널리 알려진 그는 백인에 빼앗긴 조상의 이름을 알 수 없음을 상징하여 X를 쓴다. ‘양키는 푸른 눈의 악마’라 지칭한 그는 ‘백인에게서 ‘아메리칸 드림’이 흑인에게서 ‘저질한 악몽’이었다’며 몹시 리틀을 친다. 그는 모든 악몽의 원인은 기독교라 주장한다.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다. 백인이 해석한 바이블은 백인이 아닌 수억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최대의 이념적 무기로 사용되었다. 백인들은 총칼로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항상 바이블을 휘두르며, 이를 근거로 현직인들을 ‘이교도’ 또는 ‘미개인’이라 경멸하고 핍박해왔다. 먼저 잔혹한 무장집단이 총칼을 휘두르며 유혈집략하고, 그 뒤에 선교를 빙자한 집단들이 따라 들어와 체계적인 약탈과 착취를 자행했다.”

그의 유년시절, 침례교회의 목사이던

또한 명확하다. 또 그는 흑인의 민권확보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물리적 저항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미합중국식 통합보다는 차라리 악명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분리주의의(apartheid)가 정직하다고 말한다. 마침내 그는 기독교적 편견을 초월한 흑인의 독자적 정치·경제·문화 공동체를 꿈꾼다. 이제 그 실천단계로 들어서던 1965년 2월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흑인’들의 집중총격으로 살해 당한다.

그때가 민권운동권의 행동과 학생이던 앨리스 워커가 대학을 졸업한 해다. 맬컴 엑스와 대조적으로, 온건노선을 주도한 인물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다. 불교철학과 건디의 영향을 받은 그는 비폭력무저항운동을 지향한다. 앨리스 워커는 명문 사립 로렌스대학에 다니던 중 킹 목사가 이끌던 흑인유권자등 특권파인 등 합법투쟁에 합류한다. 여기서 그녀는 붓다의 가르침과 처음 웃음을 느낀다.

성취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A kid may know it, but not even a 100 year-old can do it.

코흘리개도 다 아는 걸 나이가 백 살이 되도록 못하니 탈이지요.

One day the famous philosopher asked an old Buddhist master, "What do you think is the very essence of the Buddha's teaching?" The master answered, "So simple! Refrain from all unwholesome deeds and perform all wholesome deeds." And the philosopher chuckled, "Ha ha! Even a snotty-nosed kid

knows that." The master smiled, "A kid may know it, but not even a 100 year-old can do it. As you see, easier known than done.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노스님에게 물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본질이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노스님이 대답했다. “그야 아주 간단하죠. 그릇된 짓은 하지 말고 바른

짓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학자가 킁킁했다. “크크, 그거야 코흘리개 꼬마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노스님이 빙글 웃었다. “코흘리개도 다 아는 걸 나이가 백 살이 되도록 못하니 탈이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알기보다는 행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반얀성취 스님, 그림:이태수

明代 불경집 원형복원 완료

제작연대가 600여 년 전인 명대(明代)의 회귀 불경집이 2006년 9월부터 2년간의 철저한 원형 복원작업을 마치고 최근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문화재관리전문가와 기술진들은 중국 최고국보 중 하나인 이 불경집의 복원 및

보존에 최신 과학적 처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500년 이상 최상의 보존 상태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텔레비전은 7월 11일 보도를 통해 주중 미국대사관이 동 복원기금으로 5만 달러를 협찬했음을 따로 전했다. 출처: 中國中央電視臺

제367주기 광해군 추모제 · 기념학술대회

개혁군주 광해군의 원찰 봉인사와 한국불교

- ▶ 개최일 : 2008년 8월 2일(음 7월 2일) 토요일
- ▶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봉인사

일 정

- 제1부 : 제 367주기 광해군 추모제
 - 사회 :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
 - 장소 : 개광전 일당
 - 시간 : 10시 00분 ~ 11시 30분
- ▷ 상귀례 및 빈야심경 봉독
- ▷ 인 사 : 적경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봉인사 주지)
- ▷ 치 사 : 율운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 ▷ 현 사 : 이명래교수 (한국선문화학회회장, 충남대 명예교수)
- ▷ 예 참
- ▷ 육법공양 : 천선혜
- ▷ 다 레 : 한다 및 현화
- ▷ 진훈우 · 선우 : 이영민 외 3
- ▷ 추모의노래 : 봉인사 합창단, 현승엽

- 제2부 : 기념 학술대회
 - ◆ 오전 발표
 - 장소 : 개광전 · 시간 : 11시 30분 ~ 13시 00분 · 좌장 : 예원스님(동국대)
 - ▷ 제1주제 발표 : 광해군의 불교관과 봉인사의 창건 / 김경진교수(진각대) · 토론 : 한상길교수(동국대)
 - ▷ 제2주제 발표 : 봉인사의 한국불교에서의 위치 / 고영섭교수(동국대) · 토론 :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대)
 - ◆ 점심공양(13시 - 14시 00분)
 - ◆ 오후 발표
 - 장소 : 개광전 · 시간 : 14시 - 16시 30분 · 좌장 : 임병권교수(상명대)
 - ▷ 제3주제 발표 : 광해군대 불교와 成慶의 願濟 봉인사 / 황인규교수(동국대) · 토론 : 윤기엽교수(동국대)
 - ▷ 제4주제 발표 : 한국역사에서의 광해군의 위치 / 이덕진교수(창원전문대) · 토론 : 정영식교수(동국대)
 - ▷ 제5주제 발표 : 봉인사의 고승 부후선사의 사상과 그의 법통관 / 김방홍교수(충남대) · 토론 : 송욱 스님(봉선사)
 - ◆ 시흥서원 및 폐회

■ 행사 참가 문의 : 봉인사 총무소 해인심 사무국장 ☎ 031-574-5585, 이덕진 교수 ☎ 017-243-5838
※ 추모제 및 학술대회에 참가하실 분은 사전에 이덕진교수에게 연락을 주시면 차량 편의를 보어드립니다.

불교대학 및 기초참선 수강생 모집안내

◆ 제 27기 선하불교대학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신생활로 하고 있는 일반불자들 까지도 불교교리는 방대하고 심오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불교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 교리, 사찰예절, 기도 및 참선수행 등 불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됩니다.

- 법사 : 헤거 콘스님
-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 및 일반불자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2시
- 회비 : 14주에 6만원 (점심공양 제공)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문의 및 안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 팩스 02)445-8043

◆ 제 13기 기초참선 과정

참선을 처음 접하거나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입니다. 앉는 법부터 단계적인 지도로, 강의 · 좌선실수 · 묵언 · 지관겸수 · 생활선 · 간화선 연습을 통하여 누구나 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법사 : 헤거 콘스님, 지도법사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08시 - 10시
- 회비 : 20만원 (14주)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1매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